

## 산티아고 가는 길

**제주** 올레길을 계획할 때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는 스페인 북부의 「산티아고 가는 길」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, 쿠바 사람 알레호가 쓴 단편소설 「산티아고 순례길(Camino de Santiago)」이 활자화 된 이후이다.

본래 카톨릭 신도들의 성지순례 코스였던 이 길들은, 스페인 혹은 유럽의 여타 지역에서 산티아고 대성당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순례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지만, 사람들은 흔히 「프란세스 루트」(프랑스 국경 근처, 스페인 북부의 동쪽에서 서쪽에 걸친 약 800 km의 길)를 산티아고 가는 길로 대변한다.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 하면 으레 북경 근처의 팔달령장성(八達嶺長城)을 떠올리는 것처럼.

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꼽히는 야곱(산티아고)은 예수의 뜻을 받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길들을 걸었고, 후일 팔레스타인에서 순교한 그의 유해가 유언에 따라 피니스테레 해안으로 상륙하여 현재의 산티아고에 안장되었으며, 그 자리에 지금의 산티아고 대성당이 세워졌다.

순례길은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마음의 눈이 더해져 「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」이 되었고,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이 길을 걸으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대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.

산티아고 가는 길이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땅 끝 마을 「피니스테레(Finisterre)」이다. 사람들은 수삼 일 혹은 수십여 일을 걸어 기진맥진 산티아고에 이른 뒤, (그 중 일부는) 마지막 3일을 더 걸어서 이곳에 간다.

성 야곱의 유해가 배에서 내려진 역사적 현장을 보고자 하는 순례자도 있겠으나, 내게 더 궁금한 것은 산티아고 고행을 마친 이곳에서의 의식이었다.

전통에 따르면 여정을 마친 순례자는 땅 끝 피니스테레에 온 뒤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, ▲해가 지기 전에 땅 끝 등대에 도착하여 석양을 바라본 후 불을 피우고 그 동안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태운다. ▲그리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 몸을 씻으면 그 간의 고통이 모두 치유되고, ▲이 곳의 신선한 해산물로 배를 채운 후 달콤한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날 순례자는 「새로운 사람」이 된다는 것이다.

산티아고 순례길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고 한다.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.

무엇보다 그들은 낯선 그 길을 핑계 삼아 「방랑의 끼」를 발산하였을 것이다. 더불어 힘든 여행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, 자기성찰, 삶의 의미도 찾아보았을 것이다.

인생도 여행도 되돌아볼 때 더 풍요로워진다던가? 대성당을 향한 힘겨운 여정은 산티아고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「기쁨의 언덕」에서 한 줄기 환희의 눈물과 함께 추스르고, 마음을 다잡아 다시 내딛는 피니스테레로 향하는 길은 「가슴 저 깊은 곳에 열망과 회한(悔恨)을 담은 아주 힘든 여유」 짝으로 새기고 싶다.